

Dr. Robert Vannoy, Kings, 강의 16

© 2012, Dr. Robert Vannoy, Dr. Perry Phillips, Ted Hildebrandt

아시리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종말(BC 722),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종말(B C 586)

IV. 북 왕국의 몰락

1. 살룸과 예후 가문의 종말 - 열왕기하 15:10-15

자, 로마 숫자 IV 아래의 "C"까지 내려왔습니다. "북왕국의 몰락. "1"은 "살룸과 예후 집의 끝, 열왕기하 15:10-15"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배반하여 그는 백성 앞에서 그를 공격하고 암살하고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가랴, 우리는 로마 숫자 III, A에서 D로 백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북쪽 왕국에서 본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6개월의 통치 후에 살룸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일찍 예후의 왕조가 4대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예언을 실제로 성취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로 돌아가면 예후에게 말씀을 읽게 됩니다. 네 후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당신이 발견한 것은 예후 이후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후 왕조의 끝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살룸이 스가랴를 암살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흥미진진합니다. 북부 왕국에서는 상황이 정말 악화됩니다. 살룸 이후 남은 왕 중에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가 있습니다. 므나헴과 호세아를 제외하고 모두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아시리아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살룸, 브가히야, 베가는 암살당했고 호세아는 아시리아인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북왕국의 급속한 쇠퇴와 그 왕조의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북왕국의 남은 왕들: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므나헴

따라서 “2”는 “북왕국의 남은 왕들: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입니다. 먼저 므나헴, 열왕기하 15:14-22: “살롬이 통치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군사령관이었고 열왕기하 15장 13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나헴은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7절에 “그가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19절에서 그가 앓수르 왕 블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Pul은 Tiglath-Pileser III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의 연대기에는 그가 주전 743년에 서쪽으로 진군했다고 나옵니다. Carchemish, Hamath, Tyre, Byblos 및 Damascus와 같은 여러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명시적으로 사마리아의 므나헴을 언급합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사마리아의 므나헴에게서 공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앓수르 왕 풀이 그 땅을 침노할 때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그에게 주어 힘을 얻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참조는 Pritchard의 고대 근동 텍스트, 283쪽, 므나헴이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과 관련하여.

비. 브가히야 - 열왕기하 15:22-26

좋습니다, “b”는 “브가히야, 열왕기하 15:22-26”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므나헴의 뒤를 이어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3절을 읽게 됩니다. 25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인 베가가 그를 반역하여 암살하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따라서 그가 2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의 군대 장교 중 한 명에게 암살되었다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씨. 베가 - 열왕기하 15:27-32

따라서 “c”는 “베가, 열왕기하 15:27-32”입니다. 그는 브가히야 휘하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왕궁의 반란을 이끌고 브가히야를 암살했습니다. 다시 암살에 대한 정치적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약간의 추측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가가 아마도 반 아시리아 분파의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메섹의 르신과 연합하여 유다의 아하스를 공격하여 아하스가 앗수르를 대적하게 하려 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브가히야가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반면에 그는 아마 반앗수르 분파의 우두머리일 것입니다. 아마도 베가는 그 아시리아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브가히야를 제거하고 나서 스스로 통치했고, 27절에서 그가 20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다소 긴 통치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면 “그 때에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벨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술을 점령하고 그는 남달리의 모든 땅을 포함하여 갈릴리 길르앗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추방했습니다.

디. 호세아 - 열왕기하 15:30-17:6

“k”은 “호세아, 열왕기하 15:30~17:6”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하스에 대해 말하는 16장이 포함됩니다. 북쪽 왕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이 아시리아에 함락되었을 때 아하스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은 후 아시리아가 다마스쿠스를 공격했습니다. 34절: “다메섹이 앗수르에게 함락되었더라.” 그 무렵 호세아는 아마도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아 베가에 대한 음모를 이끌고 북왕국의 왕좌를 장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성경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글랏-빌레셀의 연대기 중 하나에서 그는 호세아를 북왕국의 왕좌에 앉혔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 텍스트, 284쪽. 열왕기하 15장 30절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는 그를 공격하고 암살했습니다.” 호세아는 아마도 저항보다는 아시리아와의 협력을 선호하는 파벌을 대표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글랏빌레셀은 호세아를 북왕국의 왕좌에 앉히고 그로부터 공물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B.C. 727년에 디글랏-빌레셀이 죽고 살만에셀 5세가 계승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호세아는 애굽에 사절을 보냈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계속해서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을 보면 “호세아가 애굽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내고 해마다 조공을 바치던 것 같이 다시는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앗수르 왕이 반역한 자임을 알아차렸더라”고 했습니다. 년도. 그래서 살만에셀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앗수르 왕이 온 땅을 침략하여 사마리아로 진군하여 삼 년 동안 그곳을 포위하였다. 호세아 9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앗수르로 추방하였다. 할라와 하볼 강가의 고산과 메대 성읍들에 살게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 호세아가 아시리아 사람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자 살만에셀은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는 호세아를 포로로 잡았고 3년 동안의 포위 끝에 그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다음 왕인 사르곤이 그 도시를 최종적으로 점령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마도 살만에셀이 거의 결론을 내린 후 소탕 작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북쪽 왕국의 포로 - 열왕기하 17:17-23

그것은 우리를 “3” “북왕국의 포로, 열왕기하 17:17-23”로 이끈다.

17장은 북왕국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알려줍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 아주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가치한 우상을 좇아 무가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이방인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금하신 일을 행하였느니라. ” 문제는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28장으로 돌아가서 언약의 저주를 읽을 때, 그 언약의 저주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농작물 흉작, 메뚜기 재앙, 가뭄,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 외면함에 따라 언약 저주의 궁극적인 절정 그 땅에서 포로로 쫓겨나고 있고 그것이 여기 북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 남았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이스라엘이 도입한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4. 사마리아인의 도래

네, 시트의 "4"는 "사마리아인의 오심"입니다. 그 장의 끝에서 여러분은 앗수르 왕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방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다른 민족들을 재정착시켰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은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하는 여러 성읍에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사마리아 족속이 산당에 세운 산당에 세웠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은 “그들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또 자기를 인도하여 온 이방인의 풍속을 좇아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시리아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후 사마리아 주변의 이 재 정착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시적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혈인들이 와서 사마리아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후대에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 읽게 됩니다. 그들은 북왕국 포로 이후 사마리아 일대에 정착한 민족의 후손들이다.

A. 아시리아 제국

그것은 우리를 유다의 마지막 세기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로마 숫자 V입니다. 3페이지 하단의 "A"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여기 이 차트로 돌아가서 중단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 산헤립이 에사르하돈(BC 681-669)에 의해 제승됨 - 열왕기하 19:37

우리는 산헤립을 통해 내려갔지만 숫자 "5"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은 산헤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하 19:37에는 산헤립과 에살하돈 사이의 계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Esarhaddon에 이어 Ashurbanipal, 669-633 B.C. Esarhaddon은 이집트 캠페인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장남인 Ashurbanipal이 계승했습니다. Shamas-sa-ukin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Ashurbanipal이 맏이였습니다. 작은 아들 Shamas-sa-ukin이 바빌론을 통치했습니다. 바빌론은 앗수르의 지배를 받는 도시였으며 샤마스-사-우킨이 바빌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빌론에서는 샤마스사우킨, 즉 아슈르바니팔의 동생이 이끄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리아인들 사이에 내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648년 오랜 포위 끝에 바빌론이 점령되어 그곳에서 본격적인 투쟁이 벌어졌고 샤마스-사-우킨은 자살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과 더 큰 통제력을 얻으려는 그의 형제 사이의 내부 투쟁으로 아시리아가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

아슈르바니팔은 그의 군사적 업적과는 별도로 아마도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니네베에 도서관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853년에 발견되었고 수많은 고대 문서의 출처입니다. 즉, Ashurbanipal의 도서관 컬렉션은 아시리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텍스트를 우리를 위해 보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A. T. 클레이 *ISBE(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초판의 Ashurbanipal에 관한 기사 *이즈비*, Ashurbanipal은 "아마도 기독교 이전 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문학 후원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이전 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문학 후원자. 그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많은 텍스트에는 2개 언어 및 3개 언어 단어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론 해독에 중요하고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를 해독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아시리아인을 전사, 무자비한 전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Ashurbanipal에는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Ashurbanipal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의 형제와의 투쟁 때문에 아시리아는 약해졌고 그들은 이집트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 633년에 죽었을 때 아시리아 제국의 종말이 임박했습니다.

3. 니느웨의 함락과 그 여파 - 나훔

시트의 "3"은 "니네베의 몰락과 그 여파"입니다. 내가 언급했듯이 Ashurbanipal의 통치 후반부는 약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바빌론은 거의 즉시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아시리아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Nabopolassar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Nabopolassar는 바빌로니아 통치자의 가계에서 첫 번째가 됩니다. 그는 훨씬 더 잘 알려진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 의해 계승되었지만, 보시다시피 바빌론은

나보플라살로 시작됩니다. 아슈르바니팔은 633년에 죽었다. 612년에 메디아와 바빌로니아는 함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네베를 공격하여 파괴했습니다.

자, 성경적 자료에 관한 한, 소선지자 나훔인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장에서 당신은 도시의 사악함과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B.C. 612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니네베가 612년에 함락되긴 했지만, 그것이 앗수르 제국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란에 새로운 수도가 세워졌습니다. 하란은 서쪽에 있다. 그리고 약 8년을 더 지속된 새로운 수도가 하란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때 바빌로니아 군대의 지도자는 느부갓네살이었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곳 하란에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는 바빌로니아에 대항하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북쪽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성경 본문을 읽음으로써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북쪽으로 갈 때 요시야는 그가 더 북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므깃도에 나갔고 요시야는 그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지원은 효과가 없었고 아시리아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패배하여 605년에 하란 바로 서쪽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큰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곳에서 앗수르의 마지막 패배가 일어났고 605년 바빌론의 승리로 바빌로니아의 우위가 확보되었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고대 근동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왕기하 23:29은 요시야가 그러한 종류의 국제적 정치 투쟁에 관여했음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요시야 왕 때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앗수르 왕을 도우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더라. 요시야 왕이 나가서 그를 맞으러 나가니 느고가 그를 므깃도에서 죽였습니다. 요시야의 신하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B.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시작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시작”인 “B”로 넘어갑시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첫 번째 통치자는 느부갓네살이었고 그는 기원전 605-562년을 다스렸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실제로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운 네보플라사르의 죽음으로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해인 605년, 갈그미시 전투와 같은 해에 나보플라살이 죽고 느부갓네살이 그를 계승했습니다. Nabopolassar의 죽음은 느부갓네살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바빌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갈그미스가 시리아와 이스라엘로 더 멀리 간 후에 바빌로니아가 남쪽으로 더 멀리 진출하는 것을 지연시켰을 것입니다. 그것은 605년입니다. 그러나 B.C. 604년에 그는 이듬해에 돌아왔고 이스라엘, 특히 남쪽 왕국에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C. 유다의 마지막 왕들

1. 므낫세 - 열왕기하 21:1-18

좋습니다. “C” “유다의 마지막 왕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은 “므낫세, 왕하 21:1-18”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1절 앞 장의 끝에서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누웠더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이어 왕이 되니라.”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매우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또한 선한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매우 다른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므낫세에 대해 읽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또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별 무리에게 절하며 6절: “그가 자기 아들을 불에 사르며 복술과 복술을 행하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나이다.”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죄를 범하였도다. 그는 자기보다 먼저 행한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을 행하여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13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접시를 닦고 뒤집어 엎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그는 악한 왕이었으며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의 통치 때문에 유다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가 결국 앗수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Kings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역대하 33장을 보면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치게 하시매 저가 므낫세를 사로잡아 코에 갈고리를 꿰고 쇠고랑으로 결박하여 그를 사로잡았더라”고 했습니다. 바빌론으로.” 그때는 바빌론이 아직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그래서 그는 그를 예루살렘과 그의 왕국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통치의 끝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열왕기하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몬 - 열왕기하 21:19

므낫세는 아몬이 계승하였다(왕하 21:19). “아몬은 22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였더라.” 23절은 “신하들이 모반하여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만 통치했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요시아 - 열왕기하 22:1-23

1. 성전에서 율법을 찾았다

그는 요시야에 의해 제승됩니다. 요시야는 중요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2:1-23, 30은 역대하 34:1-35, 27과 평행을 이룹니다. 요시야 통치 기간 동안 저는 두 가지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개혁을 시행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한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것을 요시야에게 가져다가 읽어 주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그 옷을 찢으니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는 여호와의 진노가 크도다 그들은 우리에게 관하여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책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모세 오경 전체인지 아니면 신명기에만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명기는 그것의 일부였음에 틀림없으며, 요시야를 괴롭힌 것은 이러한 저주였습니다. 언약을 저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서 여예언자 훌다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너를 보낸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곳과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 유다 왕이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것입니다.” 저주처럼 들립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나를 격노케 하였음이라.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하여 타오르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요시야가 응답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이 그의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요시야 시대 이후로 연기됩니다.

2. 요시야가 언약을 갱신하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는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23장 전체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일소되었고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했고 요시야 시대에 진정한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이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3장 26절 말미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불붙은 진노의 열기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므낫세가 그를 격노케 한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나이다 개혁은 너무 적고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여호아하스 - 우상숭배

당신은 그들이 다음 왕과 함께 즉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아하스 치하에서 그들은 바로 그 속으로 돌아가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아하스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왕하 23:31-33. 그에 대한 구절은 세 개뿐이지만 32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시야의 개혁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파라오 느고에게 사로잡혀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Neco는 여호아하스의 동생을 예루살렘에서 왕좌에 앉혔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엘리아김이었습니다. 34절을 보면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 부친 요시야를 이어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치니라. 그러나 그는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어, 그래서 Neco는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아김, 즉 여호야김과 같은 사람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5. 여호야김 - 열왕기하 23:34-24:5

그래서 그것은 “5:” 여호야김, 왕하 23:34-24:5로 이어집니다. 처음에 여호야김은 애굽의 신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 파라오에 의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605년 갈케미시 전투 이후 그는 바빌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605년 갈그미시에서 바빌론이 앗시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국제 권력 구조에 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여호야김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몇 개의 구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의 때요 여호야김의 때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고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 이름의 두시던 곳인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은 멸하리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그건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며 예레미야를 죽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셨고, 예레미야 36장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게 읽혀지는 두루마리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36장 4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루마리를 취하여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기록하라, 유다와 다른 모든 나라는 내가 요시아 통치 때부터 당신에게 말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는 이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여호야김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23절에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 서너 단을 읽을 때마다 왕이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로에 던지매 두루마리 전체가 불살랐더라. 왕과 모든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옷을 찢지 아니하니라 왕이 대신에 왕의

아들 여라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첫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말을 그 위에 기록하고 여호야김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그 두루마리를 불살라 이르기를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하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에게는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으리라 그의 몸은 밖에 버려져 낮에는 더위, 밤에는 서리에 노출될 것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수행자들을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야김 시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침노하매 여호야김이 삼 년 동안 그의 신하가 되었더라. 그러나 그는 마음을 바꾸어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습니다.” 따라서 한동안 여호야김은 바빌론에 조공을 바쳤으나 그 후 반역한 것 같습니다. 601년까지 느부갓네살은 여러 민족에 의해 유다를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바벨론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 사람을 보내어 그를 치게 하셨으니 그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여호야김은 죽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가 폭력적인 죽음을 당했음을 암시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6. 여호야긴 - 열왕기하 24:6-16

그는 여호야긴에게 제승되었다(왕하 24:6-16).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다. 그는 겨우 3개월을 재임했다. 여고냐라고도 합니다. 59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귀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했습니다. 그것은 597년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새로운 통치자를 왕좌에 앉혔습니다. 그는 맛다니아 또는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맛다니아 또는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습니다. 즉, 그는 여호야긴의 아버지인 여호야김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맛다니아 즉 시드기야에 대해 그가 11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바벨론의 지배에 반역했습니다.

7. 바빌로니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 시드기야(BC 586년)

586년에 바빌로니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포위 공격을 가하고 마침내 그것을 점령하여 성전을 포함한 도시를 파괴하고 시드기야 또는 맛다니아를 포로로 여기 다메섹 북쪽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인 다음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리블라에서 그들은 그를 포로로 바빌론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8. 그달리야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다

한편 그달리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느부갓네살이 지명한 사람이고 곧 살해당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지막 왕으로 나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달리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망명의 단계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토론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기에 잠시 동안 투명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왕국은 앓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유배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포로가 시작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된 5가지 참고 자료를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15:29입니다. 기원전 730년경에 디글랏-빌레셀은 베가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730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왕기하 18:11, 722-721 B.C.에서 살만에셀은 북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로부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 실제로 두 번의 추방이 있었는데, 하나는 B.C. 730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원전 722-721년에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4장 1절에 그가 남왕국에 왔을 때, 갈그미스 전투 직후인 605년인데 이때가 포로의 작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4절을 보면 다니엘은 605년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보인다. 그때가 여호야김 3년이었는데,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Carchemish 직후인 605년에 시작된 포로의 초기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4, 열왕기하 24:14-16, 그것은 B.C. 597년입니다. 여호야긴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대규모 포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586년 왕하 25:11과 12입니다. 그곳에서 시드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멀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알다시피, 유배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단계와 함께 북쪽과 남쪽 모두에서 일종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유배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5 또는 586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미에

따라 다릅니다. 때때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단계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통 586년을 포로기의 시작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586년 이전에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나는 결국 여기로 돌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Anna Blomberg 작성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Perry Phillips 박사가 다시 설명함